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의 다중 매개 효과-

김선우[†] · 최나홍*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Effect of the Degree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Body Appreciation in Adulthood -Multi-Mediating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nd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Sunwoo Kim[†] · Nahong Choi*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ood and Nutri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ceived December 1, 2021; Revised (January 5, 2022; January 17, 2022); Accepted January 26, 2022

Abstract

Bullying at school results in a variety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Even after victims reach adulthood, these issues do not resolve and can have detrimental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body appreciation in adulthood. Considerations include multi-mediating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nd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A research model comprised of six hypotheses was derived applying the A (adversity)-B (belief)-C (consequence) theory. A survey with 583 South Korean women in their twenties to forties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mediation analysis were applied, and all hypotheses were accepte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body appreciation in adulthood. Additionally,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nd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mediated this causal relationship. Also, the mediating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body appreciation was the greatest among the three mediating effect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bullying victimization at school continues into adulthood, which hurts body appreciation of adulthood. The findings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rapy programs for school bullying victims.

Key words: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Body appreciation,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mbivalent emotion toward beauty, Multi-mediating effect;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신체 수용, 신체적 매력 비교,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 다중 매개 효과

[†]Corresponding author

E-mail: swkim36@snu.ac.kr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557).

I. 서론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school bullying)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Olweus, 1994, 2011; Smith & Brain, 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외상으로 진단될 만큼의 강한 후유증을 남기고,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트라우마를 형성한다(Oh & Shim, 2019; Seo et al., 2015). 실제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들은 우울감, 자아 존중감의 저하, 부정적인 자아 인식,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Oh & Shim, 2019; Olweus, 1993; Park, 2017). 특히, 이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자신의 매력적이지 못한 신체가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라 자책하여,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Duarte et al., 2017).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난다 해도 이러한 트라우마가 해소되지 않으며,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성인기까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Blashill & Wilhelm, 2014; Mamun et al., 2007; Turner et al., 2013).

지금까지 상담 심리학이나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Oh & Shim, 2019; Park, 2017; Seo et al., 2015). 이들 연구들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부정적 자아 인식의 개선이나 원만하지 못한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피해자들의 부정적 신체 인식을 완화하고 신체 수용(body appreciation)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신체에 대한 인식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는 의류학에서도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 인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충분히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의류학에서 시행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관련 연구 가운데, Yoh(2017)는 중학생의 집단 따돌림 현상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매력적이지 못한 신체적 특성이 집단 따돌림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 인식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교에서 겪은 집단 따돌림 피해의 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Ellis(1990, 1991)의 ABC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ABC 이론에서 ABC는 각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A: adversity), 선행 사건으

로 인해 촉진되는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B: belief),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결과(C: consequence)를 의미하며, 이들은 서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건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사건 그 자체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건에 의해 강화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belief system)의 영향을 받아 증폭되기도 한다(David et al., 2010; Ellis & MacLaren, 2005).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으로 보고,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를 선행 사건으로 인해 유발된 부정적 결과로 설정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신체적 매력 비교(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이 부정적 신념 체계로 설정되었으며, 이들 신념 체계가 사건과 결과를 매개하는 다중 매개 모형이 연구 모형으로 개발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러한 영향력을 매개하는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신체 인식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는 의류학계에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관련 연구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부정적 신체 인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분석과 가설 설정

1. ABC 이론

Ellis(1991)의 ABC 이론은 트라우마의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지 행동 치료에 적용되어 왔다. ABC 이론은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사건이 부정적 신념을 통해 부정적 결과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Ellis, 1991). 다시 말해,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사건은 부정적 결과를 증폭시키는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신념 체계는 정서적·태도적·행동적 측면의 부정적 결과를 더욱 증폭시킨다(Ellis, 1991). 여기서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현실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으며,

긍정적 성취에 방해가 되고,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이 유발하는 심리적 체계를 의미한다(David et al., 2010; Ellis, 1990, 1991; Ellis & MacLaren, 2005).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 비하적인 사고를 하기 쉬운데, 이러한 경향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Park et al., 2007). 따라서, ABC 이론은 부정적 결과를 강화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완화를 통해 부정적 결과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Ellis 1991).

관련 선행연구들은 ABC 이론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예컨대,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담 치료 연구(Jung & Lee, 2008)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치료 연구(Park et al., 2007)에서, ABC 이론은 연구 모형의 개념적 틀로 활용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문제적 사건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가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기반으로 강화되며, 이러한 신념은 ABC 이론을 기초로 개발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큰 학창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강력한 트라우마가 형성되며, 이는 곧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이어져 다양한 측면의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Duarte et al., 2017; Hu et al., 2009; Takizawa et al., 2014; Yoh, 2017). 특히,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신체 만족의 저하라는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는데(Duarte et al., 2017), ABC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형성된 신체와 관련된 부정적 신념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학창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비합리적인 신념과 이러한 신념을 통해 강화된 부정적 결과를 ABC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BC 이론을 기반으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기반으로 성인이까지 이어지는 비합리적인 신념,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사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 명 또는 다수의 또래들

로부터 고의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공격적 행동을 의미한다(Olweus, 1994). 집단 따돌림에는 상처를 주는 말이나 놀림, 악담같은 언어적 괴롭힘,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배제하는 관계적 괴롭힘, 때리거나 꼬집고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괴롭힘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Olweus, 2011; Smith & Brain, 2000).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Jang & Seong, 2007; Kim, 2004; Park et al., 1998).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관련 연구가 시행된 초기 단계인 2000년대에 시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서울시 청소년의 46.7%, 강원도 춘천시 청소년의 56.3%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Hu et al., 2009). 최근 연구 결과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이 2020년에 초·중·고등학교생 47만 2,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8.5%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MOE], 2021). 이러한 수치는 2019년의 응답치인 23.4% 대비 5%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과제를 반영한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우리 사회에서 20년 이상 장기화된 사회적 문제이다.

초·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학창 시절은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전체 생애 주기 중 가장 큰 시기이다(Brown & Larson, 2009). 이 시기의 학생들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준을 배우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사회적 인정을 경험한다(Brown & Larson, 2009). 반면에, 이들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또래 집단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에 실패하게 되면(Oh & Shim, 2019; Park, 2017), 학교 생활의 기피, 학업 성취의 저하와 같은 학업 관련 문제와 더불어 대인 기피와 같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Lee & Chung, 2013; Strøm et al., 2013). 또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가 따돌림의 원인을 본인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우, 피해자는 자아 존중감의 저하, 우울감 증대와 같은 부정적 자아 인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Hu et al., 2009; Yoh, 2017). 나아가, 이와 같은 부정적 자아 인식은 심한 경우 자살 생각에 이르게 되고, 실제로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Lee & Chung, 2013).

집단 따돌림의 부정적 결과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치유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된다(Takizawa et al., 2014).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은 대인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놓쳐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Oh & Shim, 2019; Park, 2017), 이러한 사회적 부적응은 성인기의 자아 존중감 저하, 불안과 우울의 증대를 야기한다(Olweus, 1993). 50여년에 걸친 추적 조사(cohort study)를 시행한 Takizawa et al.(2014)은 학창 시절에 경험한 집단 따돌림 피해의 후유증은 40여년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후유증의 완화를 위해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도 정기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대인 관계를 맺기 어렵고 집단 따돌림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될 확률이 크다(Oh & Shim, 2019; Park, 2017; Takizawa et al., 2014). 그러나, 학창 시절의 집단 따돌림 피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나 피해자들을 위한 대응 방안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Yun & Lee, 2007). 특히,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가 경험하는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신체 수용의 저하는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되기 어려운 대표적 후유증 중 하나이다. 다른 생애 주기에 비해 학창 시절에는 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래들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며, 신체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Blashill & Wilhelm, 2014; Kim, 2020; Tiggemann & Pickering, 1996). 이 시기의 신체 수용과 만족은 건강한 자아 인식, 원활한 또래 관계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iggemann, 1992). 더불어, 신체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학업 성취,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높은 학교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 Kim, 2010; Kim, 2020). 이러한 시기에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라고 자책하여 자신의 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된다(Duarte et al., 2017).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학창 시절에 형성된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 열등감, 불만족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긴 시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Blashill & Wilhelm, 2014; Mamun et al., 2007). 이처

럼, 학창 시절에 경험한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이러한 영향력이 성인기까지 장기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의류학 분야에서 관련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ABC 이론을 기반으로, 학창 시절에 경험한 집단 따돌림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선행 사건으로,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신체 수용의 저하를 선행 사건의 부정적 결과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부정적 신념: 신체적 매력 비교

신체적 매력 비교는 Festinger(1954)에 의해 제시된 사회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토대를 둔 개념이다. 사회 비교 이론은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인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ability)을 평가한다고 주장한다(Festinger, 1954). 특히, 이러한 능력이 사회적 인정과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고 그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때, 사회적 비교의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Gerber et al., 2018; Radloff, 1966).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과 성공을 위해 신체적 매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Sung et al., 2009), 개인의 신체적 매력을 타인의 것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경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Patrick et al., 2004; Strahan et al., 2006). 특히, 신체적 매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에(Lawrence et al., 1998), 현대 사회에서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비교는 더욱 증대되는 추세이다(Patrick et al., 2004). 왜냐하면,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타인의 매력이 개인의 신체적 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trahan et al., 2006).

자아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비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비교는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낮은 자아 존중감과 같은 부정적 자아 인식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비교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Kim & Yang, 2010; Son, 2008). 또한, 신체적 매력 비교의 성향이 강할수록 신체 불만족과 왜곡된 외모 관리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Hogue & Mills, 2019; Yao et al., 2021). Kim and Yang(2010)과 Son(2008)은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적 매력에 대한 비교가 강해지고, 이러한 비교의 증대는 다시 신체 불만족

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Hogue and Mills(2019)는 소셜 미디어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ao et al.(2021)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체적 매력을 비교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고 극단적인 식이 조절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였다. ABC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비교는 부정적인 자아에 의해 강화되는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신념 체계로, 이러한 신념 체계가 강화되면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부정적 신체 이미지와 신체 불만족에 고통받게 된다.

학창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며, 이는 곧 낮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 비난과 같은 문제로 연결된다(Hu et al., 2009; Jang & Seong, 2007; Oh & Shim, 2019; Olweus, 1993; Park, 2017). 이 시기에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신념 체계가 형성되며, 이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Block & Robins, 1993). 실제로, 청소년기에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 인식이 성인기의 정서적 문제와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Blashill & Wilhelm, 2014; Mamun et al., 2007; Steiger et al., 2014). 따라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의 자아 존중감을 저해할 것이며(Hu et al., 2009; Oh & Shim, 2019; Olweus, 1993; Park, 2017), 이러한 부작용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것이다(Takizawa et al., 2014). 따라서, 낮은 자아 존중감이 신체적 매력 비교를 강화하는 요인임을 감안하였을 때(Kim & Yang, 2010; Son, 2008),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자아 존중감의 저하는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비교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Kim & Yang, 2010; Son, 2008).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성인기의 신체적 매력 비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부정적 신념: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

양가 감정은 양가성과 감정이 결합된 용어로, 특정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

에 느끼거나, 호·불호와 같은 감정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복합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Losada et al., 2017; Tappolet, 2005). 양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가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가성은 양면적인 가치나 이중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로, 한 가지 대상에 대한 상반되는 갈등적 방향이나 상반된 의견, 혹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동시에 여러 의견과 욕구를 갖는 현상을 의미한다(Bauman, 1991; Hillcoat-Nallétamby & Phillips, 2011). 양가성은 심리적으로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Hillcoat-Nallétamby & Phillips, 2011), 그동안 의류학 분야에서 양가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다면적인 의복 행동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Kim & Rhee, 2007; Moon & Choo, 2008). 그러나 의류학 분야에서 양가성을 감정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은 사회적 이상미에 가까운 신체적 매력을 가진 미인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혹은 여러 감정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느끼는 현상을 의미한다(Kim, 2021). 아름다운 것은 미적 쾌감(aesthetic pleasure)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접하게 되면 즐거움(pleasure), 흥분(arousal)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 유발된다(Armstrong & Detweiler-Bedell, 2008).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가 평범한 사람에 비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얻기 때문에(Reilly & Rudd, 2009; Sung et al., 2009), 다수의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미인에게 질투심, 미움, 분노, 짜증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게 된다(Kim, 2021; Kim & Lee, 2018). 따라서, 현대인들은 사회적 이상미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에 대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혹은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된다.

감정을 유발시키는 대상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심화되면 양가 감정은 더욱 증폭되고, 이러한 양가 감정은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신념 체계가 된다(Calinescu, 1987). 따라서,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큰 사람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미인을 접하였을 때 강력한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양가 감정은 미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자신의 몸에 대한 수용을 저하시

키는 신념 체계가 된다(Kim, 2021; Kim & Lee, 2018). ABC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면,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이라는 신념 체계를 증폭시키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주장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은 매력적이지 못한 신체적 특성이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Jang & Seong, 2007),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를 강화하여 신체 수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Day et al., 2021; Gattario et al., 2020). Gattario et al.(2020)은 외모에 민감한 학창 시절에 집단 따돌림의 영향으로 신체 이미지가 왜곡되면 그 영향력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도 신체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며, 이러한 강박과 스트레스는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 유발을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 2a가 도출되었다.

가설 2a.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성인기에 느끼는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이상미에 부합하는 신체적 매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평가하게 되면, 열등한 자신의 몸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강화된다(Alcaraz-Ibáñez et al., 2020). 또한,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사회적 이상미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미인에게 양가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alinescu, 1987; Kim, 2021; Kim & Lee, 2018).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신체적 매력에 대한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미인에 대해 양가 감정이 강화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 2b가 도출되었다.

가설 2b. 신체적 매력 비교는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부정적 결과: 신체 수용의 저하

Seligman and Csikszentmihalyi(2000)의 긍정 심리학을 기반으로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살펴본 연구들은 신체 수용,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 신체 만족, 외모

만족, 외모 존중감 등의 연구주제들을 아울러왔다. 이들 중에서, 신체 수용은 사회적 이상미 기준에 맞춰 자신의 몸을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긍정적인 신체 인식을 의미한다(Avalos et al., 2005; Tylka & Wood-Barcalow, 2015; Wood-Barcalow et al., 2010). 지금까지 신체에 대한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불만족, 수치심, 왜곡과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주로 연구해왔다(Matera et al., 2018; Menzel et al., 2010; Rudd & Lennon, 2000; Sarwer et al., 1998). 그러나, 부정적인 심리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낮은 점수가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Tylka & Wilcox, 2006), 기존의 연구 체계에서는 외모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 수용의 개념을 통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긍정적 신체 인식의 정도가 저하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외모 수용의 선행요인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자아 존중감 같은 심리적 요인(Gonzalez-Jimenez, 2016; Swami et al., 2016; Tylka & Wood-Barcalow, 2015), 외모에 대한 고정 관념, 강박, 차별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Lim, 2004)이 외모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외모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피해자의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키고(Hu et al., 2009; Jang & Seong, 2007; Oh & Shim, 2019; Olweus, 1993; Park, 2017), 저하된 자아 존중감은 성인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Blashill & Wilhelm, 2014; Mamun et al., 2007; Steiger et al., 2014), 저하된 자아 존중감으로 인해 성인기의 외모 수용이 저하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Gonzalez-Jimenez, 2016; Swami et al., 2016). 이상의 논의를 ABC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성인기의 신체 수용이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 3a가 도출되었다.

가설 3a.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체 수용 관련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태동하였으며, 최근에는 신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

회적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있다(Gonzalez-Jimenez, 2016; Homan & Tylka, 2018; Lim, 2004; Swami et al., 2016). 이러한 사회적 요인 중에서도, 신체적 매력 비교는 신체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Homan & Tylka, 2018), 이는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비교가 증가할수록 신체 불만족이 증대된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Matera et al., 2018; Thompson & Heinberg, 1993). 따라서, 다음의 가설 3b가 도출되었다.

가설 3b. 신체적 매력 비교는 신체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이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강력한 양가 감정은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신념 체계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Calinescu, 1987; Losada et al., 2017), 미인에 대해 느끼는 강력한 양가 감정은 미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자신의 몸에 대한 수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인에 대해 양가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신체 만족의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한 Kim and Lee(2018)의 연구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 3c가 도출되었다.

가설 3c.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은 신체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연구 모형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사건이 부정적 신념을 통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ABC 이론에 따라(Ellis, 1991), 상기의 연구가설들은 연구 모형으로 정리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는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사건으로 할당되었으며,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의 영향력이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나타나는 부정적 신념으로 상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는 이러한 사건과 신념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다음의 <Fig. 1>과 같은 다중매개 모형이 연구 모형으로 도출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과 샘플 특성

연구자료는 온라인 소비자 조사 기업의 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한국 사회에서 20년 이상 장기화된 사회적 문제이므로(Hu et al., 2009; Jang & Seong, 2007; Kim, 2004; Park et al., 1998; SMOE, 2021), 본 연구는 대한민국 20~40대 여성 583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가 비합리적인 신념을 매개하여 부정적인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변수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특정 성별로 한정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 큰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urner 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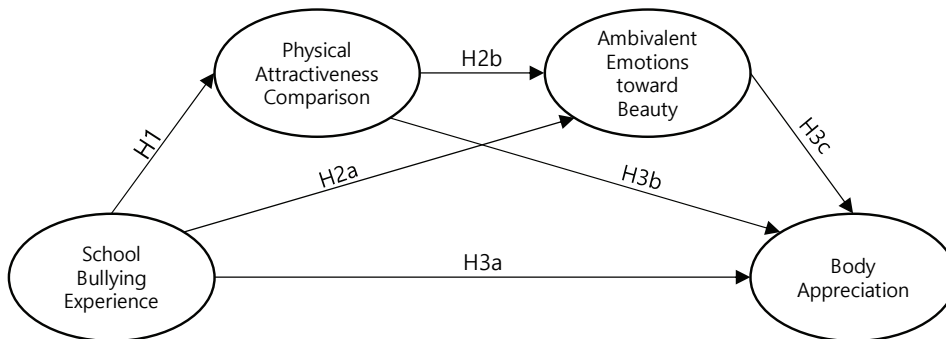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l., 2013). 신체적 매력 비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강한 경향성을 보였으며(Sohn, 2009), 신체 수용의 정도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He et al., 2020). 이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으로 한정되었다. 설문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34.49세였으며, 20대 198명(34.0%), 30대 192명(32.9%), 40대 193명(33.1%)으로 연령대별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다. 설문 참가자의 결혼 상태는, 미혼이 343명(58.8%), 기혼은 229명(39.3%), 이혼, 사별, 기타는 총 11명(1.9%)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81명(13.9%), 전문대졸이 96명(16.5%), 대학 재학이 42명(7.2%), 대졸이 308명(52.8%), 대학원 재학 이상이 56명(9.6%)으로 나타나, 86.1%의 연구 참가자가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의 직업은 사무직(28.0%)과 주부(19.6%)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및 자료 분석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설문이 개발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신체, 언어, 관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Wang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5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전 학창 시절에 걸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측정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를 측정하는 5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2.5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95였다. 신체적 매력 비교는 Schaefer and Thompson(2014)의 연구에서 개발된 신체적 매력 비교 척도(PACS: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scale)에서 6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되었으며, 6문항의 평균값은 2.71, 표준편차는 .90으로 나타났다.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은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양가 감정을 다룬 Losada et al.(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2문항의 평균값은 2.88, 표준편차는 .97이었다. 마지막으로, 신체 수용은 Tylka and Wood-barcalow(2015)가 개발한 신체 수용 척도(BAS: body appreciation scale) 중 5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되었으며, 5문항

의 평균값은 3.51, 표준편차는 .68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18.0을 통해 분석되었다. 우선 SPSS를 활용하여, 설문 참가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파악을 위한 기술통계분석이 실시되었으며, Cronbach's α 값을 통해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파악되었다. 이후, AMOS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 시행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의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공분산 행렬을 통해 각 구성 개념의 측정 모형이 검증되었다. 모형 적합성은 Hair et al.(2006)이 제시한 χ^2 -value, p -value, df , NFI, RFI, IFI, TLI, CFI, RMSEA 지수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어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시행하여 상기 지수를 통해 모형 적합도가 확인되었고, 각 변수 간의 경로를 분석하여 가설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AMOS의 부트스트래핑 기능을 활용하여 각 경로의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다중 매개 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인

주요 연구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Cronbach's α 값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867~.924로 나타나 Hair et al.(2006)이 제시한 기준인 .700을 상회하였으며,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표준화 요인 부하량, AVE, CR 값을 통해 수렴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표준화 요인 부하량 값은 .682~.933 사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준화 요인 부하량을 제공한 값의 평균인 AVE는 .500 이상일 때 수렴 타당성을 만족시키는데(Bagozzi & Yi, 1988), 본 연구의 AVE 값은 .575~.768로 나타나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CR은 표준화 요인 부하량과 오차 분산 값으로 계산하며, .600 이상일 때 수렴 타당성이 충족된다(Bagozzi & Yi, 1988). 본 연구의 CR 값은 .635~.926 사이에 위치하여 수렴 타당성의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마지막으로, Hair et al.(2006)이 제시한 지수들을 통해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형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수치들은 모두 Bagozzi and Yi(2012)가 제시한 기준을 상회하여 모형

적합도가 충족되었다($\chi^2=385.571$, $df=129$, $p<.000$, NFI=.940, RFI=.920, IFI=.959, TLI=.946, CFI=.959, RMSEA=.058). 각 연구 변수 별 표준화 요인 부하량, AVE, CR, Cronbach's α 값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별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판별 타당성은 특정 변수의 AVE 값과 그 변수와 다른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하여 파악된다.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038~.203으로 나타났으며, AVE는 .575~.768 사이의 값을 보여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값을 보였다. 따라서 각 변수 간의 판별 타당성이 검증되어, 모든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은 의심되지 않았다(Table 2). 이처럼,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가설 검증이 시행되었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우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여부

Table 1.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583

	Item	Factor Loading	t	AVE	CR	Cronbach's α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SBV1	I had suffered "hitting, kicking, and pushing" done by friends during my schooldays.	.682	-			
	SBV2	I had suffered "calling by no good nicknames, joking, and teasing" done by friends during my schooldays.	.853	17.717			
	SBV3	I had suffered "no good mentions on my appearance" done by friends during my schooldays.	.722	15.478	.575	.635	.868
	SBV4	I had suffered "no good mentions on my personality" done by friends during my schooldays.	.702	15.113			
	SBV5	I had suffered "ignoring" done by friends during my schooldays.	.817	17.177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PAC1	When I'm shopping for clothes, I compare my weight to the weight of others.	.793	-			
	PAC2	When I'm at a party, I compare my body shape to the body shape of others.	.853	23.689			
	PAC3	When I'm at work or school, I compare my body size to the body size of others.	.933	26.782			
	PAC4	When I'm with a group of friends, I compare my body size to the body size of others.	.894	25.288	.672	.836	.924
	PAC5	When I'm eating in a restaurant, I compare my body fat to the body fat of others	.719	18.907			
	PAC6	When I'm at the gym, I compare my physical appearance to the appearance of others.	.699	18.264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AEB1	I have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at the same time toward beauty whose appearance is ideally beautiful.	.836	-			
	AEB2	I have mixed feelings toward beauty whose appearance is ideally beautiful.	.915	13.841	.768	.926	.867
Body Appreciation	BA1	I feel good about my body.	.803	20.442			
	BA2	I feel that my body has at least some good qualities.	.725	18.141			
	BA3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y body.	.777	19.672			
	BA4	I feel love for my body.	.735	18.420	.591	.883	.877
	BA5	I appreciate the different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my body.	.801	-			

$\chi^2 = 385.571$, $df = 129$, $p < .000$, NFI = .940, RFI = .920, IFI = .959, TLI = .946, CFI = .959, RMSEA = .058

SBV =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PAC=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EB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BA = body appreciation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의 다중 매개 효과-

Table 2. Inter-construct correlation estimates

	SBV	PAC	AEB	BA
SBV	.575 ^a			
PAC	.061 ^b	.672		
AEB	.038	.203	.768	
BA	.048	.104	.052	.591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SBV =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PAC =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EB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BA = body appreciation

판단을 위해 Hair et al.(2006)이 제시한 지수들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모든 지수가 Bagozzi and Yi(2012)가 제시한 기준을 상회하여 수용할 만한 수준의 모형 적합성이 확인되었다($\chi^2=385.571$, $df=129$, $p<.000$, $NFI=.940$, $RFI=.920$, $IFI=.959$, $TLI=.946$, $CFI=.959$, $RMSEA=.058$).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신체적 매력 비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246$, $p<.01$),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사회적 기준에 맞춰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를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beta=.088$, $p<.05$),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사회 구성원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할수록($\beta=.429$, $p<.01$),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미인에게 더 강한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a와 2b가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beta=-.139$, $p<.01$), 신체적 매

력을 사회적 기준에 맞춰 비교하는 경향이 강할수록($\beta=-.248$, $p<.01$), 외모가 아름다운 미인에 대해 강한 양가 감정을 느낄수록($\beta=-.121$, $p<.05$),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a, 3b, 3c가 모두 지지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연구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세부 결과는 <Table 3>과 <Fig. 2>에 기재되어 있다.

3.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의 다중 매개 효과 검증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이 학교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과 성인기 외모 수용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이 시행되었다(Shrout & Bolger, 2002). 그 결과, 예측 변인들이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총 효과는 $-.229$ ($p<.01$)였으며,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Table 3.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Path	Standardized Estimate (β)	CR	p
H1	Supporte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246	5.319	.000
H2a	Supporte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088	1.976	.048
H2b	Supported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429	8.633	.000
H3a	Supporte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Body Appreciation	-.139	-2.968	.003
H3b	Supported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 Body Appreciation	-.248	-4.851	.000
H3c	Supported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 Body Appreciation	-.121	-2.571	.025

$\chi^2 = 385.571$, $df = 129$, $p < .000$, $NFI = .940$, $RFI = .920$, $IFI = .959$, $TLI = .946$, $CFI = .959$, $RMSEA =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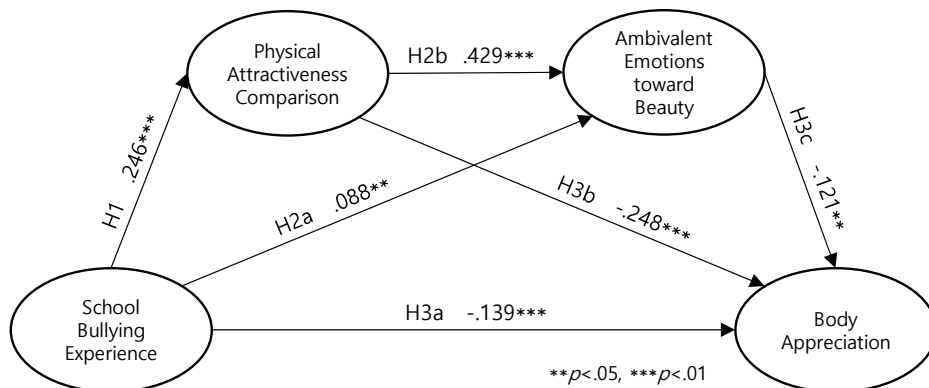


Fig. 2. Results of testing hypotheses.

대한 양가 감정을 경유하는 모든 간접 효과의 총 합은 $-.090(p<.01)$ 이었다. 이러한 총 간접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90% 신뢰 구간을 살펴본 결과, 하한 값은 $-.112$, 상한 값은 $-.042$ 로 두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경유하는 모든 간접 효과의 총 합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것으로, 이 값만으로는 개별 매개 경로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매개 경로의 크기와 유의성 확인을 위해, 본 연구는 팬텀 변수를 생성한 후 콤퍼의 형태로 된 간접 효과를 하나의 단일 계수로 만들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시행하였다(Bac, 2014).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경유하는 세 경로의 매개 효과를 각각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이 신체적 매력 비교를 경유하여 신체 수용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 효과는 $-.061(p<.05)$ 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경유하여 신체 수용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 효과는 $-.011(p<.1)$ 의 값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따돌림 경험이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거쳐 신체 수용에 이르는 매개 경로의 간접 효과는 $-.018(p<.1)$ 로 나타났다. 이들 효과들은 모두 90% 신뢰 구간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이 충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에 비해 신체적 매력 비교의 매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 효과 검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4>에 기술되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Ellis(1991)의 ABC 이론을 기반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인해 강화된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이 부정적 신념 체계가 되어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를 촉진시키는 현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과 같은 신념 체계에 의해 매개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가 성인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다수 존재하지만(Oh & Shim, 2019; Olweus, 1993; Park, 2017; Takizawa et al., 2014), 이러한 피해 경험이 성인기의 신체 수용을 저해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성인기 이후의 신체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건강한 신체상 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신념 체계가 강화되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를 증폭시킨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부정적 신념 체계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결과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의 다중 매개 효과-

Table 4. Results of the multiple mediation analysis

Path	Non-Standardized Estimate (b)	Standardized Estimate (β)	Bootstrap S.E.	90% CI for Bootstrap
Direct Effect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Body Appreciation	-.133	-.139	.054	-.229~-0.043***
Indirect Effect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 Body Appreciation	-.059	-.061	.019	-.090~-0.029**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 Body Appreciation	-.008	-.011	.007	-.031~-0.001*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 Body Appreciation	-.015	-.018	.006	-.021~-0.001*
Total Indirect Effect	-.082	-.090	.021	-.112~-0.042***
Total Effect	-.215	-.229	.054	-.312~-0.139***

* $p < .1$, ** $p < .05$, *** $p < .01$

를 확장하여 유추해보면 신체 수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수들 역시 비합리적인 신념이 되어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를 촉진시킬 것이라 예측된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초기 단계의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신체 수용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신념 체계에 대한 고찰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 적용된 신념 체계 중,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경유하는 두 경로의 매개 효과는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통상적으로 귀무가설은 1%, 5%, 10% 유의수준에서 기각되긴 하나, 10% 유의수준은 가설 채택의 근거가 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Meng, 1994).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인한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를 강화하는 신념 체계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 경험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까지 신체 수용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상담 심리나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왔다(Oh & Shim, 2019; Park, 2017; Seo

et al., 2015). 이들 연구들은 피해자의 부정적 자아 인식 개선이나 원활한 사회적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였으나, 신체 수용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사건에 의해 강화된 신념 체계를 완화함으로써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역시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ABC 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David et al., 2010; Ellis, 1990, 1991; Ellis & MacLaren, 2005), 신체적 매력 비교나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과 같은 신념 체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저하된 신체 수용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ABC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인지 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트라우마를 유발한 과거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러한 사건으로 형성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완화함으로써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Jung & Lee, 2008; Park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보다 신체적 매력 비교를 경유하는 매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상기 프로그램의 개발 시 신체에 대한 사회적 비교 정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와 성인기

의 신체 수용 저하 간의 인과성을 밝힌 초기 단계의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을 다양화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더 강력한 후유증에 시달리며(Turner et al., 2013) 남성에 비해 여성이 왜곡된 신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He et al., 2020; Sohn, 2009), 본 연구는 연구가 더 시급한 대한민국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성별에 따른 구분이 없이 자행되며 남녀 모두에게 장시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신체 수용의 저하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로 한정시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사회심리적 후유증을 남기므로(Lee & Kahng, 2003), 연구대상을 가해자로 확대시킨 후속 연구도 수행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즉각적인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재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 수용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성인기의 신체 인식과 관련된 연구 변수를 좀 더 다양화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 변수 이외에도 신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념 체계를 적용하여 연구 모형을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요인이나 이들이 처한 사회환경적 요인을 연구 모형에 포함시킨다면, 다양한 사회심리문화적 조건에 따라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결과가 완화되거나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처럼,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경험이 장기간 동안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신체 수용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신체 인식을 주요 연구 분

야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의류학 분야에서 관련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References

- Alcaraz-Ibáñez, M., Sicilia, Á., Díez-Fernández, D. M., & Paterina, A. (2020).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s and symptoms of disordered eating: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physique anxiety in Spanish adolescents. *Body Image, 32*, 145–149. doi:10.1016/j.bodyim.2019.12.005
- Armstrong, T., & Detweiler-Bedell, B. (2008). Beauty as an emotion: The exhilarating prospect of mastering a challenging worl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4), 305–329. doi:10.1037/a0012558
- Avalos, L., Tylka, T. L., & Wood-Barcalow, N. (2005). The body appreciation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Body Image, 2*(3), 285–297. doi:10.1016/j.bodyim.2005.06.002
- Bae, B.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1-Principles and practice-]. Seoul: Chungram.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doi:10.1007/BF02723327
- Bagozzi, R. P., & Yi, Y. (2012). Specification,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1), 8–34. doi:10.1007/s11747-011-0278-x
- Bauman, Z. (1991). *Modernity and ambivalence*. Cambridge: Polity Press.
- Blashill, A. J., & Wilhelm, S. (2014). Body image distortions, weight, and depression in adolescent boys: Longitudinal trajectories into adulthood.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5*(4), 445–451. doi:10.1037/a0034618
- Block, J., & Robins, R. W. (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4*(3), 909–923. doi:10.1111/j.1467-8624.1993.tb02951.x
- Brown, B. B., & Larson, J. (2009).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Vol. 2: Contextual influen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3rd ed.) (pp. 74–103).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doi:10.1002/9780470479193.adlpsy002004
- Calinescu, M. (1987). *Five faces of modernity: Modernism, avant-garde, decadence, kitsch, postmodern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Cash, T. F., & Pruzinsky, T. (Eds.). (2002).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 NY: The Guilford Press.
- David, D., Freeman, A., & DiGiuseppe, R. (2010). Rational and irrational beliefs: Implications for mechanisms of change and practice in psychotherapy. In D. David, S. J. Lynn, & A. Ellis (Eds.), *Rational and irrational beliefs: Research,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pp. 195–217).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ay, S., Bussey, K., Trompeter, N., & Mitchison, D. (2021). The impact of teasing and bullying victimization on disordered eating and body image disturbance among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10.1177/1524838020985534
- Duarte, C., Pinto-Gouveia, J., & Stubbs, R. J. (2017). The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bullying experiences, body image shame and disordered eating in a sample of adolescent gir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6*, 319–325. doi:10.1016/j.paid.2017.05.003
- Ellis, A. (1990). Is rational-emotive therapy (RET) “rationalist” or “constructivist”?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8*(3), 169–193. doi:10.1007/BF01066283
- Ellis, A. (1991). The revised ABC's of rational-emotive therapy (PET).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9*(3), 139–172. doi:10.1007/BF01061227
- Ellis, A., & MacLaren, C. (2005).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 therapist's guide* (2nd ed.). Atascadero, CA: Impact Publishers.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doi:10.1177/00187267540700202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doi:10.1177/002224378101800104
- Gattario, K. H., Lindwall, M., & Frisén, A. (2020). Life after childhood bullying: Body image development and disordered eating in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4*(3), 246–255. doi:10.1177/0165025419877971
- Gerber, J. P., Wheeler, L., & Suls, J. (2018). A social comparison theory meta-analysis 60+ years on. *Psychological Bulletin, 144*(2), 177–197. doi:10.1037/bul0000127
- Gonzalez-Jimenez, H. (2016). Associations between cosmopolitanism, body appreciation, self-esteem and sought functions of cloth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1*, 110–113. doi:10.1016/j.paid.2016.05.056
- Hair, J. F., Black, B., Babin, B.,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an, H.-R., & Kim, H.-S. (2010). The effe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appearance consciousness on school adoption among the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The mediating role of fashion conformity-. *Korean Education Inquiry, 28* (2), 61–76.
- He, J., Sun, S., Zickgraf, H. F., Lin, Z., & Fan, X. (2020). Meta-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body appreciation. *Body Image, 33*, 90–100. doi:10.1016/j.bodyim.2020.02.011
- Hillcoat-Nallétamby, S., & Phillips, J. E. (2011). Sociological ambivalence revisited. *Sociology, 45*(2), 202–217. doi:10.1177/0038038510394018
- Hogue, J. V., & Mills, J. S. (2019). The effects of active social media engagement with peers on body image in young women. *Body Image, 28*, 1–5. doi:10.1016/j.bodyim.2018.11.002
- Homan, K. J., & Tylka, T. L. (2018). Development and exploration of the gratitude model of body appreciation in women. *Body Image, 25*, 14–22. doi:10.1016/j.bodyim.2018.01.008
- Hu, S.-H., Park, J.-S., & Jung, T.-Y. (2009).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bullying on the self-image and self-esteem of adolescent victims. *Studies on Korean Youth, 20*(4), 279–299.
- Jang, M. H., & Seong, H. G.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social identity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1), 77–87. doi:10.21193/kjpp.2007.21.1.006
- Jung, S.-Y., & Lee, H.-R. (2008).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by REBT on the career awareness and learning motiv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7*(3), 217–229.
- Kim, J., & Rhee, E.-Y. (2007). A study on ambivalent consumption in the purchase behavior of apparel produ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2), 172–189.
- Kim, S. (2020). Effects of Korean female adolescent make-up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0*(4), 65–79. doi:10.7233/jksc.2020.70.4.065
- Kim, S. (2021). Effect of appearance instrumentality on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ambivalent emotions toward attractive friends and appearance apprec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21*(1), 38–53. doi:10.7233/ijcf.2021.21.1.038
- Kim, S., & Lee, Y. (2018). Why do women want to be beautiful? A qualitative study proposing a new “human beauty values” concept. *PLoS ONE, 13*(8):e0201347. doi:10.1371/journal.pone.0201347
- Kim, S.-A. (2004). A study on tendency of the group harassment researches. *Studies on Korean Youth, 15*(1), 73–107.
- Kim, Y. S., & Yang, N. M. (2010). Mediating effect of physical

-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in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restrained eating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4), 791–815.
- Lawrence, J. W., Heinberg, L. J., Roca, R., Munster, A., Spence, R., & Fauerbach, J. A.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cale: Assessing body image among burn-injured pati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10(1), 64–70. doi:10.1037/1040-3590.10.1.64
- Lee, E.-H., & Kahng, U.-H. (2003). Adolescents' dominance, superiority, self-admiration, lack of faith in human natu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2), 323–353.
- Lee, J.-Y., & Chung, I.-J. (2013). The pathways from school bullying to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With a special focus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4, 219–239.
- Lim, I.-S. (2004). Sociocultural context of diet: Focused on college women's look-discriminatory experience and the body images of mass medi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8(2), 165–187.
- Losada, A., Pillemer, K., Márquez-González, M., Romero-Moreno, R., & Gallego-Alberto, L. (2017). Measuring ambivalent feelings in dementia family caregivers: The caregiving ambivalence scale. *The Gerontologist*, 57(3), e37–e46. doi: 10.1093/geront/gnw144
- Mamun, A. A., Cramb, S., McDermott, B. M., O'Callaghan, M., Najman, J. M., & Williams, G. M. (2007). Adolescents' perceived weight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Obesity*, 15(12), 3097–3105. doi: 10.1038/oby.2007.369
- Matera, C., Nerini, A., & Stefanile, C. (2018). Why are men interested in cosmetic surgery procedures? Examining the role of different forms of peer influence, social comparison, internaliza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Body Image*, 26, 74–77. doi:10.1016/j.bodyim.2018.06.003
- Meng, X.-L. (1994). Posterior predictive *p*-values. *The Annals of Statistics*, 22(3), 1142–1160. doi:10.1214/aos/1176325622
- Menzel, J. E., Schaefer, L. M., Burke, N. L., Mayhew, L. L., Brannick, M. T., & Thompson, J. K. (2010). Appearance-related teasing,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A meta-analysis. *Body Image*, 7(4), 261–270. doi:10.1016/j.bodyim.2010.05.004
- Moon, H.-K., & Choo, H.-J. (2008). The effects of clothing consumption values on ambivalent clothing consum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2), 1–14.
- Oh, h. j., & Shim, h. m. (2019).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relational-life of university students with experiences of bully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1), 101–128. doi:10.23844/kjcp.2019.02.31.1.101
- Olweus, D. (1993).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Long-term consequences and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In S. Hodgins (Ed.), *Mental disorder and crime* (pp. 317–349).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Long-term outcomes for the victims and an effective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L. R. Huesmann (Ed.), *Aggressive behavior: Current perspectives* (pp. 97–130). Boston, MA: Springer. doi: 10.1007/978-1-4757-9116-7_5
- Olweus, D. (2011). Bullying at school and later criminality: Findings from three Swedish community samples of males. *Crimin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21(2), 151–156. doi:10.1002/cbm.806
- Park, E.-J. (2017). A christian counseling study for the healing of a college student experienced the adolescent bullying. *Theology and Praxis*, 53, 281–303. doi:10.14387/jksph.2017.53.281
- Park, K. A., Back, H. S., & Han, J. S. (2007). The effects of REBT group counseling on the job stress,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elf-esteem of nurs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3), 951–963. doi:10.15703/kjc.8.3.200709.951
- Park, K. S., Son, H. K., & Song, H. J. (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henomenon of bullying by stud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www.kedi.re.kr/kh_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01
- Patrick, H., Neighbors, C., & Knee, C. R. (2004). Appearance-related social comparisons: The role of contingent self-esteem and self-perceptions of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4), 501–514. doi:10.1177/0146167203261891
- Radloff, R. (1966). Social comparison and ability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6–26. doi: 10.1016/0022-1031(66)90061-8
- Reilly, A., & Rudd, N. A. (2009). Social anxiety as predictor of personal aesthetic among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7(3), 227–239. doi:10.1177/0887302X08329645
- Rudd, N. A., & Lennon, S. J.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152–162. doi:10.1177/0887302X0001800304
- Sarwer, D. B., Wadden, T. A., Pertschuk, M. J., & Whitaker, L. A. (1998). The psychology of cosmetic surgery: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8(1), 1–22. doi:10.1016/S0272-7358(97)00047-0
- Schaefer, L. M., & Thompson, J. K. (2014). The development

- and validation of the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Revised (PACS-R). *Eating Behaviors*, 15(2), 209–217. doi:10.1016/j.eatbeh.2014.01.001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doi:10.1037/0003-066X.55.1.5
- Seo, Y. S., An, H. Y., Lee, C. R., & Choi, J. Y. (2015). Research on traumatic bullying experience and its recovery proc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7(3), 685–719.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1, January 21). 서울시교육청,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2020 School violence survey]. *서울교육소식* [Seoul Education News]. Retrieved from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511&step1=3&step2=1#one>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10.1037/1082-989X.7.4.422
- Smith, P. K., & Brain, P. (2000). Bullying in schools: Lessons from two decades of research. *Aggressive Behavior*, 26(1), 1–9. doi:10.1002/(SICI)1098-2337(2000)26:1<1::AID-AB1>3.0.CO;2-7
- Sohn, S. H. (2009). Body image: Impacts of media channels on men's and women's social comparison process, and testing of involvement measurement.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17(1), 19–35. doi:10.1080/15456870802505670
- Son, E. J. (2008). The Influence of self-esteem, physical comparison,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on the eating disorder symptoms of college ag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3), 885–901.
- Steiger, A. E., Allemand, M., Robins, R. W., & Fend, H. A. (2014). Low and decreasing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 adult depression two decades la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2), 325–338. doi:10.1037/a0035133
- Strahan, E. J., Wilson, A. E., Cressman, K. E., & Buote, V. M. (2006). Comparing to perfection: How cultural norms for appearance affect social comparisons and self-image. *Body Image*, 3(3), 211–227. doi:10.1016/j.bodyim.2006.07.004
- Strøm, I. F., Thoresen, S., Wentzel-Larsen, T., & Dyb, G. (2013). Violence, bully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 study of 15-year-old adolescents and their school environment. *Child Abuse & Neglect*, 37(4), 243–251. doi:10.1016/j.chiabu.2012.10.010
- Sung, Y. S., Park, E. A., Lee, J. W., & Kim, W. S. (2009). Psychological power of beauty: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and life-domain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0(3), 461–488. doi:10.21074/kjlcap.2009.10.3.461
- Swami, V., von Nordheim, L., & Barron, D. (2016).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nectedness to nature and body appreciation in women, but not men. *Body Image*, 16, 41–44. doi:10.1016/j.bodyim.2015.11.001
- Takizawa, R., Maughan, B., & Arseneault, L. (2014). Adult health outcomes of childhood bullying victimization: Evidence from a five-decade longitudinal British birth cohor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1(7), 777–784. doi:10.1176/appi.ajp.2014.13101401
- Tappolet, C. (2005). Ambivalent emotions and the perceptual account of emotions. *Analysis*, 65(3), 229–233. doi:10.1093/analysis/65.3.229
-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3). Preliminary test of two hypotheses of body image disturb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4(1), 59–63. doi:10.1002/1098-108X(199307)14:1<59::AID-EAT2260140108>3.0.CO;2-T
- Tiggemann, M. (1992). Body-size dissatisfac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age and gender, and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1), 39–43. doi:10.1016/0191-8869(92)90215-B
- Tiggemann, M., & Pickering, A. S. (1996). Role of television in adolescent women's body dissatisfaction and drive for thin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0(2), 199–203. doi:10.1002/(SICI)1098-108X(199609)20:2<199::AID-EAT11>3.0.CO;2-Z
- Turner, M. G., Exum, M. L., Brame, R., & Holt, T. J. (2013). Bullying victimizatio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General and typological effects across sex.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1(1), 53–59. doi:10.1016/j.jcrimjus.2012.12.005
- Tylka, T. L., & Wilcox, J. A. (2006). Are intuitive eating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opposite poles of the same constru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74–485. doi:10.1037/0022-0167.53.4.474
- Tylka, T. L., & Wood-barcalow, N. L. (2015). The Body Appreciation Scale-2: Item refine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Body Image*, 12, 53–67. doi:10.1016/j.bodyim.2014.09.006
- Wang, J., Iannotti, R. J., & Nansel, T. R. (2009). School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4), 368–375. doi:10.1016/j.jadohealth.2009.03.021
- Wood-Barcalow, N. L., Tylka, T. L., & Augustus-Horvath, C. L. (2010). “But I Like My Body”: Positive body image characteristics and a holistic model for young-adult women.

- Body Image*, 7(2), 106–116. doi:10.1016/j.bodyim.2010.01.001
- Yao, L., Niu, G., & Sun, X. (2021). Body image comparisons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restrained eating: The roles of body shame, body appreciation, and body mass index. *Sex Roles*, 84(7-8), 465–476. doi:10.1007/s11199-020-01179-1
- Yoh, E. (2017). Victim personality and appearance factors affecting bully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a model of consequence variable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5(2), 237–251. doi:10.7741/rjcc.2017.25.2.237
- Yun, S.-W., & Lee, Y.-H. (2007). The effects of the peer-support program for the outsiders of bullying.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2), 271–292. doi:10.15842/kjcp.2007.26.2.001

김 선 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조교수

최 나 흥

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
